

최초의 여성 경무관, 3·1운동 이끈 독립운동가였다

[중앙일보] 입력 2019.10.22 06:00



1948년 12월 황현숙 치안국 여자경찰과장(첫번째 줄 왼쪽 5번째)이 인천여자경찰서를 순시하고 찍은 기념사진. 황 경무관의 왼쪽은 또 다른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전창신 인천여자경찰서장(경감) [사진 경찰청]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독립운동가 고(故) 황현숙 선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도 남아있지 않던 황 선생의 기록은 한 지방경찰청 직원이 향토 자료를 발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청은 21일 최초의 여성 경무관이 1948년 11월 임명된 황현숙 선생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최초의 여성 경무관은 2004년 1월 승진한 김인옥(67) 전 경무관으로 알려져 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청 경무계 소속 직원이 건국 초기 여경 기록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후 지역 방송의 다큐멘터리 등을 참고해 황 경무관의 존재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당시의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해 황 경무관의 복무 기록을 확인했다. 1948년부터 근무한 황 경무관의 인사기록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라졌다. 기록을 검토한 경찰은 최근 유족을 만나 최종적으로 황 경무관의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

3·1운동 주도..."유관순 열사와 같은 방 수감"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황 선생은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천안에서 만세 운동을 이끌다가 공주형무소에 투옥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 선생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투옥됐다"면서 "두 분이 한 방에서 함께 옥고를 치렀다는 증언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출소 후에도 황 선생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 때 동맹휴학을 이끈 배후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다. 독립 후에는 이승만과 김구 등 독립운동가와 함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위원' 28인 중 한명으로 활약했다.

황 선생은 1948년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의 권유로 치안국 여성경찰과장에 채용됐다. 당시 여성경찰과장은 전국의 여성경찰을 총괄했다. 당시 경무관은 치안 총수인 치안국장(이사관)에 다음가는 직급으로 최고위직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황 선생이 독립운동가로서 명망이 높았던 만큼 경무관 자리를 권유한 것 같다"며 "지금보다 훨씬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던 시대상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55명 발굴

경찰은 지난해부터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발굴해오고 있다. 한준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팀' 계장(경정)은 "지난해 제주 4·3사건 때 많은 사람을 구한 독립운동가 출신 문형순 경감이 알려졌다"면서 "이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 차원에서 발굴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55명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발굴했다. 광복군으로 활약하다가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백준기 경위 등 독립군 출신 경찰관 15명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도 발굴 기법 등을 공유하며 지역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발굴을 독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광복 직후 경찰은 친일파 일색이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미군정 자료를 보면 80%는 새로 임용된 경찰관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많이 발굴해 역할을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